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통합 능력과 언어능력과의 상관관계 연구

동산난청연구소, 부산구화학교
박 상 희 · 권 영 주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소리를 듣는 능력과 말소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통합 능력은 청각장애 아동의 듣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도구이며, MCDI-K는 부모가 언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부모가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각통합 능력, 언어이해능력, 언어표현능력이 연령과 교육받은 시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대상은 청각장애 아동 19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19개월(25~55개월)이었다. 청각통합능력 검사와 MCDI-K(최은희 등)를 치료사나 선생님이 직접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 중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이 체크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MCDI-K를 체크할 때, 제스처 또는 동작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검사지의 각 항목에 제스처라고 표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측정도구는 청각통합능력검사(이상훈 등, 2003), MCDI-K(최은희 등, 2001)이다. 각 측정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 10.0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

본 연구 결과, 청각통합 능력과 교육받은 시기는 상관계수 $r = -.531$ ($p < .05$)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은 상관계수 $r = .881$ ($p < .01$)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각통합능력은 이해 능력과 표현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 아동은 제스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청각적 통합능력은 낮지만 이해능력과 표현능력은 높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듣기는 우수하나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착용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아들이 사용하는 제스처와 몸짓의 빈도를 줄이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는 언어를 구어로 듣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각통합능력은 아이들이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능력이므로 교육시기가 빠를수록 우수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 교육시기가 낮을수록 청각통합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청각장애 아동의 청각 능력을 발달시켜 이해와 표현능력의 발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